



# 농산물 포장재의 현황 및 개선에 대하여

정우정 |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대외협력국장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포장재 및 물류용구로 사용되는 재질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골판지상자이며 프라스틱, 스티로폼, 그물망, 비닐포대 등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관기일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과일품목을 비롯하여 신선 채소류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들이 주로 골판지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딸기, 포도, 버섯, 양채류 등 일정기간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스티로폼 상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딸기, 포도의 경우에는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2kg ~ 5kg으로 소분한 골판지포장 출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판매는 옹이한 반면에 소비자 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신선도 유지가 안되고 보관기일(시간)이 극도로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체포장재가 없는 가운데 딸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들어서 일명 다라딸기라 칭하는 바가지모양의 프라스틱 용기로 전환되어 다라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보관기일(시간)만 약간 연장되었을 뿐, 신선도유지에는 역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와 보관기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포장재로는 스티로폼 재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산지와 소비지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우 반입을 꺼려하는 포장재가 스티로폼이라는 사실은 재활용 및 그 처리문제로 인하여 상당기간 진통을 겪는 바람에 기피 포장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절실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FTA 협약체결 등으로 인하여 쏟아지는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을 갖추수 있으려면 품질보전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포장재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 우선의 현실적인 규격개선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농산물인 배추의 경우에도 금년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는 반드시 포장상태가 되어야 함을 자치 단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포장재인 그물망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골판지, PP박스 등이 대체포장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각 재질과 용구의 특성상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배추포장화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면 농산물 포장의 전반에 파급되는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보이며 농산물 포장재의 대표성을 가질수 있으므로 각 포장회사 및 관련단체에서는 사용포장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문제 및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존의 포장재 위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우선 고려사항이 신선도 유지와 품질보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포장재의 선택과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감용 처리시설 및 처리능력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통하여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에 염려가 없음을 강조하고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기피포장재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야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농산물 물류의 용구화로 변질되어 가는 현행 표준 규격을 보완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 규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병행한다면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도매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